

ISSN 1599-7863

박물관사람들

2016년 여름 ■ 54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강릉 방해정

발행일 2016년 6월 3일 **발행인** 김정태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전화** (02)2077-9790~3
기획 신병찬 **편집회원** 강현자·계윤애·길문숙·문정원·서유미·정은정 **진행** 서승연 **디자인** 문화공감 (02)2266-1897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inmk.org

회지에 글을 싣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2016년 여름 ■ 54호 Contents

기획/강릉	오래된 榮華	4
	파고든다	7
	물 좋고 정자 좋고	10
문화칼럼	수메르-맨, 루갈반다Lugalbanda	14
전시실 산책	나, 다시 돌아갈래	18
회원마당	영등할망, 잘 갑세!	21
	즐기려는 마음 하나	24
학술상	송시열과 윤선거 분쟁의 기록	26
박물관회 소식	학술상 시상내역 · 후원안내	31
숨은 전시	蓮花化生	33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국립중앙박물관회는	34

오래된 榮華

그것을 보러 간다고 했을 때 별다른 기대를 하진 않았다. 이미 그런 류의 유적은 많이 접했었으니까. 하지만 막상 그 앞에 섰을 때는 마음이 달라졌다.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유럽에선 멘히르menhir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로는 선돌, 입석立石이라고 하는 신비한 선사시대의 수직 거석 두 개를 앞에 둔 기분이었다.

그것의 이름은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이다. 높이가 5.4미터나 되어 현존하는 것들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당연히 선사시대의 것은 아니다. 신라 하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단부가 땅에 묻혀 있어서 거대한 돌 두 개가 흙에서 불쑥 솟아난 것처럼 보인다. 아무리 커도 그렇지 겨우 당간지주를 가지고 신비의 거석문화 운운하면 허풍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괜찮다는 심정이다. 아무런 조각도 없고 정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을 정도로 거친 모습 때문일까? 가공했지만 가공되지 않은 것 같은 그 모습에서 원형元型이라는 것이 느껴진다.





굴산사지 승탑

굴산사에서 큰 법회가 열린다. 많은 인파가 몰리니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야외에 법석法席을 차리고 설법을 해야 한다. 야단법석野壇法席이다. 대웅전 앞에는 커다란 괘불이 걸리고 당간에는 당幢이 나부낀다. 지주가 그렇게 크니 당간은 얼마나 높았으며 당은 얼마나 컸을까? 아마도 이 고장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절에 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리라. 이렇게 큰 당간의 규모와 걸맞게 이 절은 신라 하대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하나인 사굴산문關嶠山門의 본산으로 한때 수도하는 승려만 이백여 명에 달하여 절에서 쌀 씻은 물이 동해까지 흘렀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을 정도로 큰 절이었다.

당간지주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굴산사지의 대부분의 건물 터는 발굴이 완료되지 않아서 보호를 위해 덮어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굳이 이곳에 와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승탑을 보기 위해서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모습으로 볼 때 만들어진 시기는 신라 말 고려 초, 주인은 이 절을 창건한 범일국사라 추정된다. 그 당시의 다른 승탑과 형식은 비슷한데 각 부분의 특이한 비례 때문에 한눈에 봐도

여러모로 달라 보인다. 아마도 전문가들은 이런 것을 보고 균형미가 부족하다고 할 것 같다. 하지만 뜯어보기 시작하면 무척이나 정성 들여 만든 승탑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지대석의 사자 조각부터 시작하여 하대석의 구름, 중대석의 비천상, 그리고 상대석의 연꽃 조각까지 매우 화려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은 지대석과 하대석 사이에 있는 구름과 연꽃을 새긴 넓은 받침이다. 팔각형의 구름 받침 위에 연꽃이 얹혀 있고, 그 꽃잎 위로 구름이 꼬리처럼 드리워져 있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눈길을 사로잡는다. 절터를 나서려던 차에 운 좋게도 원래는 푹푹 싸여져 있어서 볼 수 없는 탐비 귀부를 볼 수 있는 행운을 잡았다. 탐비는 간데없고, 거북이 목은 떨어지고, 등 부분의 돌이 벗겨져서



명주군왕릉

일부에서만 거북 등껍질 문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이 그렇게 훼손된 것은 화재 때문이라고 한다. 굴산사가 어떻게 발전하다가 폐사되었는지에 대한 남아 있는 기록은 없다. 도대체 이 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이렇듯 시간이나 노동력에 대한 제약 없이 만들어진 작품들을 볼 때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권력과 재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생각해볼게 된다. 이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신라의 선덕왕이 후사 없이 죽은 7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화백회의에서 결정된 왕은 태종무열왕의 후손인 김주원이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르기 위하여 궁으로 가던 중 폭우로 인해 알천의 물이 불어서 건너지 못하자 이 또한 하늘의 뜻이라면서 내물왕의 후손인 상대등 김경신이 추대되어 원성왕으로 즉위했다. 과연 더 이상의 흑막은 없었는지 김주원이 순순히 왕위를 포기하였는지 등은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다. 어쨌거나 왕위 쟁탈전에서 패한 김주원은 더 이상 중앙에 머무를 수 없었는지 처가가 있는 지금의 강릉인 명주로 이주하였다. 원성왕은 김주원을 지방에 묶어두기 위해 명주군왕으로 봉하고

양양, 강릉, 삼척, 울진, 평해에 이르는 영동지방을 식읍으로 주었다고 한다. 이 식읍은 김주원과 그 후손들이 막강한 호족세력을 형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고 이후로 명주 도독은 김주원의 후손에게 세습되었다.

범일국사가 입적한 해는 889년인 진성여왕 3년, 원종과 애노의 난이 일어나 신라가 본격적으로 쇠락의 길로 접어든 해이다. 그의 속가명은 김품일. 명주군왕의 후손이었다. 신라의 왕권이 약해지면서 갈수록 강력해진 호족이라는 출신배경에 더해, 당나라 유학을 통해 역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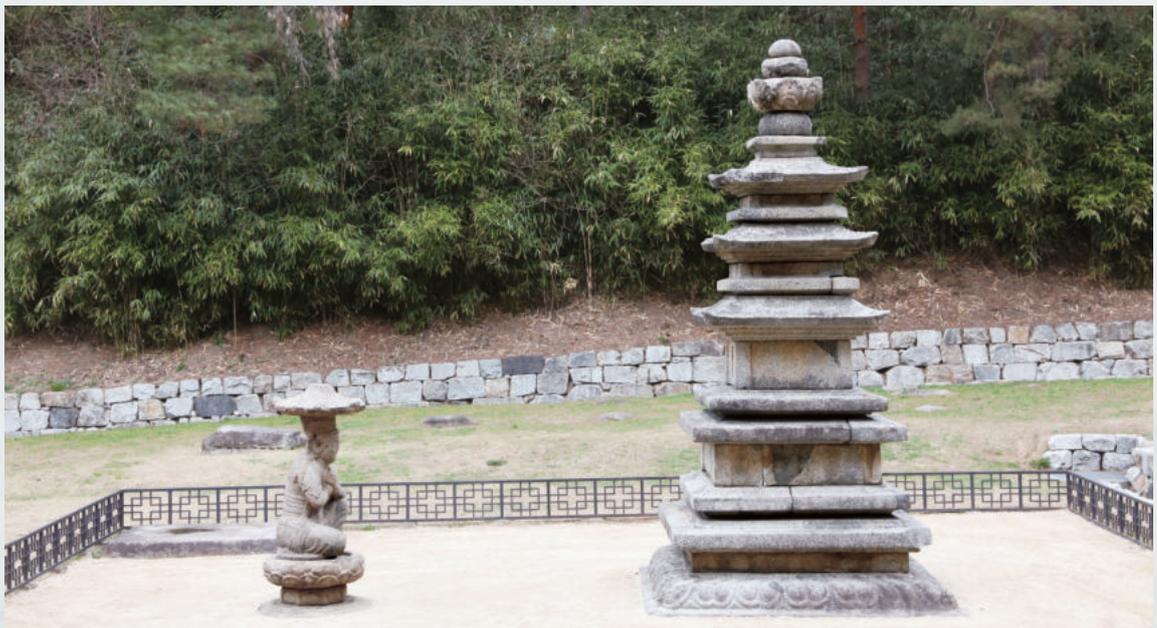
바꿀 신진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될 선종이라는 새로운 사상에서 깨달음을 얻어 사굴산문이라는 일파의 대종사가 된 그의 일생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니 이 사람이야말로 이 역동적인 시대의 행운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더더구나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강릉 단오제의 주신인 대관령 국사성황이 바로 범일국사라니 죽어서까지도 신이 되어 추앙 받는 비결이 그의 법력으로 인한 것인지 인간적인 매력 때문이었는지 궁금해진다.

강릉을 떠나는 길에 대관령 자락에 있는 명주군왕릉에 올랐다. 그를 시조로 하고 있는 강릉 김씨들이 그 지역에서 번창하고 있기에 어느 왕릉 못지않게 잘 관리되어 있었다. 비록 패배해서 이곳으로 물러났지만 그의 후손들은 그 덕에 새로운 역사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관령 고개 위에서 내려다본 강릉은 저 멀리 경포대와 함께 평화로워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신사임당과 이이 그리고 허난설헌 등으로 조선시대 인물과 유적지로만 기억해왔던 강릉에 그보다 더 오래되고 역동적인 시대가 있었다. 서유미 회원

파고든다

해발 832m의 대관령을 넘는 아찔한 긴장감이 오늘 여정에 지불할 여비라면, 일출은 쟁반 같은 홍색의 감촉이 명랑한 기운을 담아 손에 닿을 듯 애뜻한 설렘이었다. 강릉은 강원 문화의 중심지로 빼어난 경관만큼이나 문화적 색채를 보듬어온 곳이다. 명주군왕 이후 정치, 문화적으로 번영을 이룬 강릉 호족은 고려 태조를 지지하면서 중앙으로부터 권위와 자율성을 인정받았다. 호족은 자신들에게 힘이 되는 선종의 구산선문 사굴산파를 후원하여 불사를 조성하고 수준 높은 불교조각을 제작하였다. 신복사지, 한송사지와 인근 오대산 월정사에서는 나름의 지역성과 조형미를 갖춘 개성적인 감각의 석조보살좌상이 만들어졌다. 유사한 양식의 특색 있는 불상이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지방 문화의 다양성이 존재했던 고려 초의 분위기도 함께 읽을 수 있다.

아주 야트막한 산이 옆드려 있다. 강릉시 내곡동 403-2 신복사지. 한 나무가 다른 나무를 끌어안으며 푸른빛의 침묵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청대 숲 그리고 주변의 흰칠한 소나무들은 돌봄 나무를 자청한다. 안락하고 포근한 새 둥지 같은 곳을 석탑과 석불 한 쌍이 지키고 있다. 공양하는 불상의 뒷태를 덤석 안고 싶은 맘의 정체는 터가 주는 안온함 때문인지도 모른다.



신복사지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국립춘천박물관

종교는 특정한 물건으로 자신을 표현하거나 위상을 높이는 장신구를 갖고 있다. 교황은 즉위할 때 성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징표로 어부의 반지를 받는다. 보살상은 보관을 쓰고 영락이라는 다양한 길이의 구슬 장식과 여러 장신구를 두른다. 들고 있는 지물持物을 통해 이름도 구별할 수 있다.

신복사지 석조보살좌상을 자세히 본다. 머리에 원통형 보관을 쓰고 부드럽고 복스러운 얼굴에 눈썹은 초승달 같은 곡선을 그리며 시선은 아래로 향한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귀의 양 끝에 구멍이 뚫려 있어 귀걸이를 끼웠던 것으로 보인다. 목에는 선각으로 삼도를 새겼고 무늬 없는 목걸이와 팔찌도 두르고 있다. 가슴까지 끌어올린 두 손에 지물의 손잡이로 보이는 금속주가 남아 있는 석조보살이다. 옷을 입은 형태는 어깨에 두꺼운 천의를 솔처럼 걸치고 가슴에는 조백條帛을 대각선으로 감아 등 뒤로 돌렸다. 치마의 두겹고 굵은 주름이 뒤탈을 풍성하게 하는데 반가사유상과 닮아 있다. 오른쪽 무릎을 꿇고 왼쪽 무릎을 세운 보살좌상은 두 손을 모아 잡고 공양하는 자세로 삼층석탑을 바라보고 있다. 그 간절함의 끝은 무엇과 닿아 있을까?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강릉시립박물관

한송사지에는 보살상을 받치던 사자와 코끼리 모습의 대좌 두 구가 남아 있다. 이곳의 임자들은 현재 국립춘천박물관과 강릉시립박물관에 서로 헤어져 있다. 국보 124호 석조보살좌상은 미소도 자태도 단아하고 아름답다. 1912년 일본에 반출되었다 한일협정에 의해 1966년 돌아왔으나 한국 근대사의 상처를 오롯이 품고 국립중앙박물관을 거쳐 국립춘천박물관에 앉아 있다.

세련되고 유연한 자세와 정교한 조각의 신체 표현은 통일신라 양식을 계승한 듯 보인다. 원통형의 높은 보관과 양어깨에 드리운 머리, 풍만

한 얼굴에 아래를 굽어보는 두 눈, 인자한 미소는 토착적인 조형미를 살렸다. 한쪽으로 살짝 기운 얼굴의 다소곳한 표정에는 인간적 모습도 담겨 있다. 특히 재료가 뽀얀 대리석이라 반짝거리는 유리질이 신비롭고 거기에 부드러움이 더해졌다.

고려 후기 관동지역의 여행기를 담은 이곡의 『동유기東游記』에는 절터에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석상이 땅속으로부터 위로 솟아 나왔다(文殊普賢二石像從地湧出).’는 사람들의 말을 전하고 있다.

기록처럼 전시실에는 사자 대좌를 재현하여 지혜로운 문수보살좌상과 만날 수 있게 해준다.

보현보살로 추정되는 또 다른 한송사지 보살상은 명주군 구정면 어단리에 있던 것을 보물로 지정하면서 1992년 강릉시립박물관으로 옮겨왔다. 머리와 오른팔이 없어진 불완전한 형태지만 입체적인 조각 수법과 경쾌한 느낌이 살아 있다. 두 보살상의 자세는 서로 다리를 바꾸었을 뿐, 한쪽 다리가 안으로 들어가고 다른 한쪽 다리는 밖으로 내어 바닥에 놓는 특이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므로 두 보살상을 협시보살이라 추정하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생이별을 겪고 있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두 석조보살은 언제나 만날 수 있을까. 바라보는 내게 얼굴 없는 보살상의 온기가 전해져 오는 건 그가 건네는 마음이려나.

보살상들의 시선은 투명하고 특별하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들어주는 것 같다. 지역의 개성적인 감각과 조형미보다 어찌면 그 시선 때문에 내게는 유사 가족처럼 느껴진다.

절박함에서 애면글면 노력하는 나약한 인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듣는 자의 무한한 시선은 치유 이상의 안도감이다. 깊은 침묵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작은 떨림과 마주하는 시간의 정적이 편안하다.

‘호곡장好哭場’, 연암이 광활한 요동 별관을 보고 감회에 젖어 감정의 꾸밈없는 울음을 이야기한, 참 좋은 울음 터. 그다지 너른 공간도 감동적인 주변 환경이 주어진 것도 아니련만 내겐 신복사지가 꼭 그랬다. 내내 눈에 밝히고 어느새 석조보살좌상 앞에 앉아 있다. 공기처럼 스며드는 분위기, 그 시선 때문이다. 부드러운 미소와 다정한 얼굴이 나를 대신해서 울어준다. 나도 모르게 엉겨주춤 안아버린 석조보살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나의 심연을 들여다본다.

말의 주술사, 시인 오세영은 이렇게 말한다.

웃는 듯, 우는 듯 생사를 초월하신 그 한생의 평정이어. 🍃

정은정 회원



물 좋고 정자 좋고



방해정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은 심오한 대자연의 섭리를 보고 정신적 즐거움을 느낀다고 한다. 옛 선조들이 풍광이 빼어난 곳에 누정을 지어 자연과 함께하기를 즐긴 이유다. 누정에는 나그네도 쉬어 가고, 바람도 들러 가고, 풍경도 머문다. 또한 시와 노래를 불러들이고 여유자적하면서 정을 들여놓는다. 그런 기다림이 거기 있기에 아름다움이 머무는 것이다. 경포호 주변에 지어진 누정들은 호수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소나무숲과 어우러진 자연을 배경 삼아 모임을 갖고 정신적 휴식을 취했던 문화 향유의 공간이었다.

사면의 넓은 호수 한 면으로 이어지고 四面平湖總一邊
 물가 난초 대나무 섬이 가을빛을 감췄구나 汀蘭島竹鎖光煙
 시인묵객 모여들어 시문을 드내었고 衣冠隊聚文明世
 받들고 지탱하여 오랜 세월 견디었네 棟守能支劫闕年

가끔 이렇게 속세를 벗어나
 자유로운 영혼을 누리는
 보헤미안이 되어 누정이라는
 낙원에서 시간을 넘나들며
 쉬어보는 것은 어떠할까.

어디선가 한시 읊는 소리가 구성지게 들린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취영정 현판이 걸린 정자에서 한 노인이 시를 읊고 있다. 안내문을 읽어 보니, ‘이곳은 1888년에 결성한 취영계의 계모임 장소’라고 쓰여 있다. 정자를 둘러보니, 여섯 개의 기문 현판과 당시 취영계원들이 지어 걸은 서른여섯 개의 시문 현판들이 정자 안에 걸려 있다. 노인이 읊고 있던 시는 그중 권달수라는 계원이 지은 시였다.

강릉은 '셋만 모이면 계를 만든다.'는 속설이 있을 만큼 계의 종류가 많고 역사도 오래되었다는데, 혹시 어르신도 계원이시냐고 여쭙었더니, 대답 대신 '금란반월회' 이야기를 꺼내신다.

1466년에 강릉지역 선비 16명이 상호간의 우의를 다질 것을 맹세하면서 조직한 모임이란다.

'금란반월회'는 국내 최고의 향촌 계획 조직으로 5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절마다 모여 우의를 다지며 그 맥을 잇고 있다며, 노인은 '금란반월회문'에 들어 있는 '맹약오장'을 읊으신다.

"벗을 사귀되 마음의 벗만을 사귀라. 무릇 우리들이 함께 맹세하는 것은 관직에 나가서 揚名하는 데 있고, 좋은 일에는 술과 안주로 축하하고, 죽음이나 근심에는 쌀 五升을 부조한다."

'금란반월회'의 스승인 최응현의 훈화도 들어본다.

"友道에는 心友와 面友가 있다. 친우 사이에 착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잘못이 있으면 충고하고 뒷날 貴賤이 생겨도

변함이 없으며 환란이 있어도 우의를 바꾸지 않고 오직 憤함과 욕심을 참는 것이 심우다. 반대로 나보다 현명하면 증오하고 잘못이 있으면 소리 내어 말하고 술자리에서는 형제처럼 말하나 이해에 있어서는 異民族같이 냉담하며 귀한 사람은 후대하고 천한 사람은 박대하는 것이 面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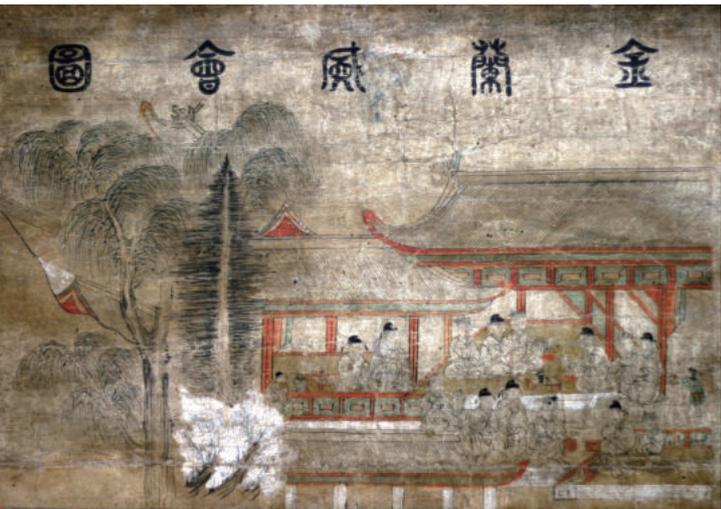
노인은 금란반월회의 이름에 '금란'을 사용한 것은 易經에 나오는 '친구가 同心을 갖게 되면 금이라도 쪼개서 나누고 그 향기는 蘭과 같다.'는 말에서 따온 것이라는 말도 덧붙여 주신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友道다.

당시 계획의 모습을 담은 그림인 '금란반월회 계획도'가 2008년에 공개되었는데, 현존하는 계획도 중 가장 연대가 오래돼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한다. 노인이 다시 계획도에 대해 시를 읊듯이 이야기하신다.

"팔작 기와지붕의 별당식 누정에 선비 16명이, 세 개의 반상을 중심으로 앉아서 시를 짓고 답소하는 장면으로 보아, 계 모임 날이로고. 그들 양쪽에는 시종 두 명이 술병을 나르는



향기로운 시간이로다.
시간은 가고 있는가, 머물러 있는가.
시간마저도 머물러 지나가려 하지 않는구나.



금란반월회 계획도



경포대

모습 또한 흥겨웁도다. 누정 주변에 있는 능수버들과 살구 꽃과 사철 푸른 솔나무 등은 사시사철 변함없이 모임을 가진다는 의미로고.”

‘금란반월회’는 경포호수가 바라다보이는 언덕에 있는 금란정에서 조선후기까지만 해도 시를 짓고 문장을 겨루기도 했다는데, 요즘은 금란정에 모여 음식과 술을 나누는 정도라고 한다. 19세기말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세워진 취영정 등 7개의 누정은 ‘금란반월회’와 마찬가지로 모두 강릉 지역의 계모임이 주가 되어 건립했다고 한다. 당시 우리 선조들은 이처럼 정자에 모여 친목을 도모하였다. 주로 동갑계 위주로 모임을 가졌으며, ‘금란반월회문’의 ‘맹약오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계의 소중함을 귀히 여겼다.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수많은 계모임을 가지고 있다. 동창회, 각종 동호회, 남매계 등등. 요즘은 조선시대의 계모임처럼 금이라도 쪼개어 나눌 수 있는 향기로운 모임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끼리끼리 모여 친목을 다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즐거움을 함께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닦아 놓은 계모임의 풍습 때문이리라. 특히 경포대 주변에 있는 많은 정자들은 강릉 지역의 계모임이

성했으며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현대인들은 주로 카페에서 모임을 갖는다. 현재 강릉은 커피의 도시로 유명하다. ‘강릉 커피 거리’의 낭만을 즐기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다. 문화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옛 선조들이 이루어 놓은 강릉 계문화도 현재 강릉항 일대가 커피문화 1번지로 자리매김하게 된 배경이 아닐까.

노인이 자리를 뜨며 따라오라고 손짓을 한다. 경포호 주변을 따라 걷는다. 경포호는 육수와 해수가 교차하여 형성된 담호로, ‘경포’란 호수가 거울처럼 깨끗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옛날에는 둘레가 40여 리나 되었다고 하니 지금 호수의 크기는 과거에 비해 절반쯤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경포호 주변에 현재 남아 있는 누정은 모두 12개로, 가장 오래된 고려말의 경포대부터 해운정(1530), 금란정(1889) 등이 있고 가깝게는 월파정(1958년)까지 건립 시기가 다양하다. 경포호 한가운데에 수채화처럼 서 있는 월파정은 호수에 비친 달빛이 물결에 흔들리는 것에 비유하여 이름 지었다고 한다. 수반에 놓여 있는 한그루 소나무 분재처럼 아기자기한 누정이다.

노인의 발길이 다다른 곳은 방해정이다. 원래 이곳은 삼국 시대의 고찰인 인월사 터였는데, 1859년 통천 군수를 지낸 이봉구가 정자를 짓고 만년을 보낸 곳이다. 풍광이 좋은 터에 자리잡은 누마루가 있는 별당 형식의 정자다. 누마루는 한옥에서 가장 품위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 휴식을 위한 공간이기에 조망 또한 빼어나다. 누마루에서 세 면의 창문을 활짝 열자, 경포호가 한 폭의 산수화처럼 창에 걸린다. 창문은 그대로 경포호 풍광이 된다. 차경! 경치를 빌린다는 것이 이토록 아름다웠던가. 경포호의 수려한 자연이 방으로 들어와 소반에는 빛이 차려지고 차례대로 풍경이 들어앉는다. 어찌 시 한 수가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

향기로운 시간이로다.

시간은 가고 있는가, 머물러 있는가.

시간마저도 머물러 지나가려 하지 않는구나.

따사로운 햇살과 감미로운 바람이 함께 머물며 휴식의 편안함을 더해준다.

다시 해운정으로 발길을 돌린다. 해운정은 경포호 서쪽에 있는 별당식 정자로, 1530년 심언광이 강원도 관찰사로 있을 때 지은 것이다. 강릉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양식의 누정이다. 이전에는 사방이 탁 트인 누각이었던 데 비하여 해운정은 사방에 벽과 문을 붙이고 바닥에 온돌을 설치하여 장기간 유숙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대청 전면에는 네 짝의 문을 달아 그 문을 전부 개방하면 경포호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닫혀 있는 네 짝의 창호에 빛이 새어 들어온다. 정돈된 문살의 정갈함이 아름답다. 주변에는 소나무가 울창하고 바람소리 또한 깨끗하여 해운정에 들면, 마음이 정갈해진다. 누정이 보살펴 주는 힘이 느껴진다.



해운정



해운정 천장

누정에 들면 설레지 않아도 마음이 고귀해진다. 풍요로워진다. 가끔 이렇게 속세를 벗어나 자유로운 영혼을 누리는 보헤미안이 되어 누정이라는 낙원에서 시간을 넘나들며 쉬어보는 것은 어떠할까. 마음 한 줄기 톡 놓이는 쉼이 기다리고 있는 곳. 문득 정이 그리워질 때, 강릉으로 누정 따라 계모임 가지 말입니다. 🐾

강현자 회원

수메르-맨, 루갈반다

Lugalbanda

최근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영웅들 중 우리가 열광했던 존재로는 아이언맨이 단연 눈에 띈다. 일반인이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 영웅이 된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전에는 스파이더맨과 벼트맨이 비슷한 경우였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물론 슈퍼맨이 있었다. 이런 영웅들은 과학자나 사업가에서 외계인까지 그 출신이 다양하지만 어떤 특별한 계기나 사건을 통해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그 후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중문화는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끊임없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를 창조해 내고, 우리가 그 영웅들이 살았던 이야기를 들으며 대리만족을 얻게 해 준다.

그럼 이런 슈퍼 영웅들은 현대 영화사업이 창조해 낸 새로운 문화적 장치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문명이 태동하던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는 수메르Sumer 사람들이 살았는데, 인류 최초로 고안해 낸 쐐기문자로 다양한 문학작품들을 창작하면서 루갈반다Lugalbanda라는 영웅을 그려낸다. 그는 ‘동굴에 간 루갈반다Lugalbanda in the Mountain

Cave’라는 이야기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데, 측은하다 못해 한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당시 우눅Unug의 왕 엔메르카르Enmerkar는 자신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산지 아랏타Aratta를 정벌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 군사들이 하늘의 구름같이 모여들어 용감하게 진군하였고, 그들이 행군할 때 날리는 먼지가 하늘을 가릴 지경이었다. 우눅의 군사들은 그들이 살던 평야에서 볼 수 없었던 깊은 계곡과 호수를 지나고 높은 산들을 넘어야 했지만 ‘고기를 찾아 달리는 개처럼’ 지친 기색이 없었다.

루갈반다는 왕의 친위대 중 한 명으로 군사들을 이끌어야 할 장교였는데, 침착하게 앞으로 나가던 중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고 만다. 끔찍한 두통이 그를 덮쳤고, ‘갈대 밧에 머리가 걸려서 끌려가는 뱀처럼’ 앞으로 고꾸라졌으며, ‘밧에 걸린 산양처럼’ 머리를 땅바닥에 처박고 말았다. 동료들은 그를 우눅으로 후송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깊은 산속에서 우눅까지 후송할 방법이 없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차가워지는 산공기를 피해 그를 따뜻한 장소로 옮겨 눕히는 것뿐이었다. 행군을 멈출 수 없었던 그들은 가까운 동굴 안에



수메르 시대 군대의 모습

음막을 만들어 루갈반다를 눕히고, 과일과 치즈, 고기와 버터, 맥주와 다른 음료를 차려서 머리맡에 놓아두고 떠난다. 루갈반다의 무기도 그 옆에 남겨 놓았다. 루갈반다는 숨은 쉬지만 눈도 뜨지 못하고 입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가 다시 건강을 회복한다면 그 음식을 먹고 자기들을 따라오고, 그렇지 않고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다면 자기들이 돌아오는 길에 시신을 우눅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약속하며 떠났다.

루갈반다는 이렇게 하루 아침에 긴장한 군인에서 죽기만 기다리는 환자로 변했다. 옆에는 간호해줄 가족도 친구들도 없었다. 외롭게 병마와 싸우며 이들이 지나고 사흘째 저녁이 되자, 루갈반다는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서쪽으로 넘어가는 태양의 신 우투Utu에게 간청한다. 제발 병을 낫게 해 달라고, 부모형제도 없는 산속에서 혼자 죽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그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은 우투신은 능력이 풍성한 저녁별 인아나Inana 여신을 동굴로 내려 보낸다. 루갈반다는 찬란한 인아나 여신을 보고, 자신이 일어서지도 못하고 제물도 바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며,

제발 자기 몸이 산속 동굴에서 썩어가지 않도록 해 달라고 기도한다. 그의 눈물을 본 인아나 여신이 루갈반다에게 평화로운 잠을 허락하고, '양모로 만든 옷처럼' 기쁜 마음으로 그를 감싸 안았다. 그 후 거룩한 달의 신 쉰Suen이 초승달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를 살펴보았다. 그가 마치 떠오르는 우투 신처럼 환한 빛으로 동굴을 밝히자, 루갈반다가 깨어나 다시 눈물을 흘리며 구원을 빌었다. 쉰은 그의 눈물을 보고 그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였고, 그의 발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다음날 아침 우투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빛을 온 하늘에 비추기 시작할 때, 루갈반다의 수호신과 수호여신이 그에게 돌아왔고, 질병으로 그를 쳤던 신은 떠나갔다. 루갈반다는 우투를 올려다보며 자기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자신을 구해 준 신들을 찬양했다.

이렇게 기운을 되찾은 루갈반다는 동료들을 찾아 떠났다. 산속을 며칠 동안 헤매도 사람의 흔적을 찾지 못했는데, 꿈속에서 신탁을 받고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자 놀라운 도움을 받게 되었다.

‘루갈반다와 안주드 새 Lugalbanda and the Anzud Bird’라는 이야기를 보면 그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오르지 못한 높은 홍옥수의 산꼭대기에서 안주드 Anzud 새 둥지를 찾게 된다. 안주드 새는 사자 머리와 상어의 이빨, 그리고 독수리의 발톱을 가진 괴물이며, 이 새가 날면 야생 황소나 사슴이 숨을 곳을 찾아 도망쳐야 했다. 루갈반다는 안주드 새의 새끼가 둥지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꿀을 섞어 만든 하늘의 빵과 양 비계를 먹이로 주고, 새끼를 이쁘게 치장해 주었다. 사냥을 마치고 야생 소 두 마리를 잡아 돌아오던 안주드 새는 자기가 불러도 새끼가 대답이 없자 걱정하였으나, 오히려 자기 새끼가 배불리 먹고 예쁘게 치장을 하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흐뭇해졌다. 만약 어떤 신이 자기 새끼를 이렇게 잘 대접해 주었다면 그와 친구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 그 인간의 운명을 바꾸어 주겠다고 다짐했다.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인 채 모습을 드러낸 루갈반다를 보고 안주드 새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탐내는 복을 받으라는

운명을 점지해 준다. 그러나 루갈반다는 그런 복을 모두 거절하고 다른 소원을 말한다.

거룩한 루갈반다는 자기 발에 달리는 힘을 주어 영원히 지지 않기를, 자기 팔에 힘을 주어 넓게 펴도 절대 약해지지 않기를, 햇빛처럼 인아나처럼 이쉬쿠르의 폭풍우 일곱 개처럼 불꽃처럼 번개처럼 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자기가 눈을 두는 곳에는 어디든 갈 수 있고, 자기가 눈길을 돌리는 곳은 어디든 발을 내딛게 되기를 빌었다. 자기 심장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 도달하고, 자기 심장이 그 이름을 부르는 곳은 어디든 거기서 신발을 풀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안주드 새는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루갈반다의 운명을 정했다. 루갈반다는 안주드 새의 보호를 받는 영웅으로 탄생한 것이다. 그 후 안주드 새가 우늑의 군대가 어디 있는지 알아다 주었고, 루갈반다는 형제와 동료들을 찾아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큰 공을 세우게 된다.



메소포타미아 군사영웅의 전형적인 모습



사자머리 안주드 새

오천 년 전에 수메르 사람들이 상상했던 영웅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친 미약한 인간이었다.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그동안 믿고 의지해 왔던 사람들도 전혀 도와줄 수 없으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한탄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는 보통 인간이었다. 그 깊은 고통과 외로움의 심연 속에서 그는 해와 별과 달을 보면서 마지막 희망을 힘겹게 이어갔고, 햇빛과 별빛 그리고 달빛은 그에게 따사로운 아내의 품과 같고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아버지의 힘과 같았다. 산속 동굴에서 하늘에 떠서 지나가는 신들을 영접하는 경험을 통해 병이 낫고 원기를 회복한다. 루갈반다가 영웅이 되는 데 필요했던 것은 첨단과학 기술이나 외계문명의 힘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로 그리고 초자연적인 위로로 다가왔던 해와 별과 달이었다. 평소에 자신하던 체력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형제와 동료들도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변함없이 그에게 남아 있는 존재는 위대한 자연이었던 것이다. 그 후 루갈반다는 모험을 계속하며 인적이 없는 깊은 산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안주드 새를 만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친구를 만나 영웅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아무런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깊고 험한 산속을 헤매다가 오히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보화를 얻게 된 것이다. 문명의 상징이었던 우늬에서는 불모지 광야와 같다고 여겼던 자연 속에서 절대 만날 수 없는 위대한 동료를 만나 진정한 영웅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루갈반다 이야기는 한계 상황을 만나 자기가 살던 세계를 떠나야 했던 인간이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해 고난을 헤치고 자기 세계로 돌아오는 전형적인 ‘영웅설화’의 구조를 보여준다. 수메르 사람들은 따스하게 다가오는 신들이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상상의 동물을 통해 자연이라는



메소포타미아 왕과 그의 신들

배경을 깔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2016년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은 어떤 영웅이 필요할까? 먹고 살기 위해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우리들과 달리 이 세계를 과감히 떠나 영웅이 되어 돌아올 사람은 없는 걸까? 우리가 바라는 영웅은 어디로 떠나 누구를 만나고 돌아와야 할까?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여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친구는 누가 되어야 할까? 유치원을 향해 뛰어가는 아이들과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원을 향하는 청소년들을 보며, 언제나처럼 돌아온 선거철에 한 표를 던지며 영웅을 기다린다. 🐾

윤성덕 서울대학교 교수

나, 다시 돌아가길래

특별전 <보존과학, 우리문화재를 지키다>에서 색다른 경험을 한다. 보존과학실을 본뜬 오픈 랩이 설치되어 유물의 복원 작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다. 시각자료로만 보다 처음으로 직접 마주하니 '역사가 되살아나는 현장'의 증인이 된 듯 남다른 기분이 든다. 유리벽 너머에는 지난 풍상을 이고 지고 있는 병풍 한 점이 보인다. 누렇게 바래서 그림과 글씨가 희미한 우리 문화재는 외국 박물관의 소장품인데 한국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복원을 맡았다고 한다. 바닥에 앉은 학예 연구원은 낮은 작업대 위에 눕혀진 병풍에서 핀셋으로 배접을 제거하는 중이다. 다른 편 작업실에는 산산이 부서진 도자의 파편이 가득하다. 최고 난이도의 퍼즐 맞추기가 될 터인데 평면도 아닌 입체의 조각이라니, 절로 고개를 젓게 된다. 여러 단계의 처리 과정에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정성을 기울여야 유물들이 제 모습을 찾으려나. 고개 한 번 들지 않고 조심스레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연구원들이 안타까운 한편, 유물의 메이크오버가 기다려져 한참을 보고 또 보게 된다.

공주 무령왕릉, 경주 천마총과 황남대총, 부여 능산리 출토 백제대향로, 광주 신창동 유적지, 경남 창원 다호리 고분군, 불국사 석가탑 내 문화재……. 새로이 역사책을 써야 할 만큼 큰 성과를 거둔 역사적인 발굴들이다.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 아래 발굴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게 말쑥해진 유물들이 놓일 때 보존처리 담당자들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었다. 우연이나 행운이란 말은 그들이 겪은 시행착오나 열악한 환경에도 변함없던 열정을 가려 버린다. 1976년 시작된 우리의 보존과학, 이제야 그 기능과 활약을 조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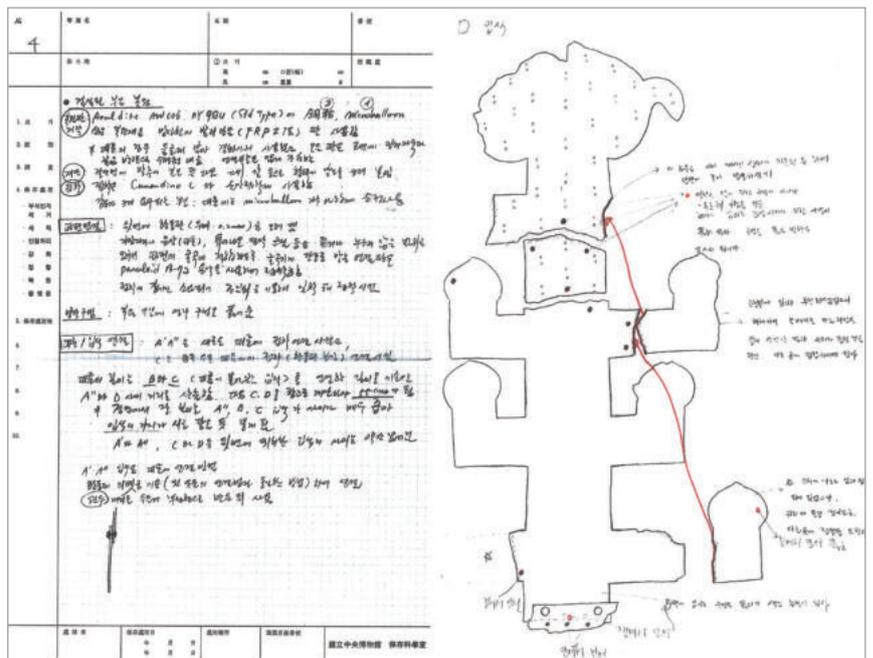
전시실 입구에 위치한 현미경은 보존과학 분야의 초기 상황을 말없이 웅변한다. 당시의 첨단 장치로 위용을 드러내지만



깨지고 녹슬고 변색한 유물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지 싶다. 기마인물형 토기(국보 제91호), 금동관음보살입상(국보 제127호), 감은사지 서삼층석탑 사리장치(보물 제366호), 나주 신촌리 금동관(국보 제295호) 등 7~80년대의 보존처리 실례는 맨땅에 헤딩하는 연구자들의 심정을 돌아보게 한다. 조각을 맞추고 녹을 제거하고 깨진 곳을 보수해나간 지난한 노력의 시간들이 영상으로 지나간다. 이제는 보기 힘든 손글씨로 꼼꼼하게 작성된 기록지에 눈이 머문다. 사명감과 인내심의 자취를 읽는다.

‘1부, 우리 문화재의 재료와 기술을 보다’, 과학 수업 시간이다. 회화작품의 숨겨진 밑그림을 드러내는 적외선, 도자의 수리 부분을 환하게 밝혀주는 자외선, 조각상 내부의 상태를 보여주는 X선, 빛의 종류와 쓰임새를 배운다. 지금도 완벽한 재현이 어렵다는 잔무늬거울(다뉴세문경, 국보 제141호), 귀걸이(금제태환이식, 국보 제90호), 허리띠고리(국보 제89호) 앞에서는 형용할 말을 잇는다. 지름 21cm 청동거울 안에 촘촘히 그어진 1만 3천여 개의 가는 선이 원, 세모, 네모의 도형으로 변하고 금속 특유의 광택이 눈에 아른대니 옵티컬 아트 같다. 얇게 펴지고 가늘게 뽑아지는 성질을 지닌 금은 요술을 부린다. 확대경이 없다면 잘 보이지도 않는 최소 0.3mm의 알갱이가 평면뿐만 아니라 곡면까지 촘촘히 접합되어 찬란하게 빛난다. 미세한 금알갱이와 가늘디가는 금선을 가지고 붓으로 그리는 것보다 더 자유자재로 꽃잎과 거북등 그리고 힘차게 꿈틀거리는 용을 섬세하게 표현해 놓은 장인은 누구일까. 우주탐험에 비견될 만한 당대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제작기법이나 재료의 성분이 밝혀졌어도 인간이 만들었다고는 믿기가 어렵다. 정말로 앞선 문명 세계에서 지구로 건너온 물건이려나, 과학적 사실보다 먼저 마음에 들어온 말들이 떠나지 않는다.

문헌기록보다 유물과 유적에서 더욱 풍부하고 거짓이 없는 정보를 얻게 되지만 발굴에는 보존을 위한 훼손이란 역설이 따른다. 옛 사람들의 자취를 더듬어갈 때 발굴 외의 다른 선택지는 무엇일까. 새로운 기술이 답을 주지 않을까. ‘2부, 병든 문화재를 치료하다’, ‘역사와 만난 현대 과학’은 유물을 복원할 때 무한의 재가공을 가능케 하는데 이전보다도 작업의 안정성은 높다고 한다. 먼저 3D스캐너로 디지털 원형을 얻는다. 결손 부위를 추정하여 모델링을 한 후 3D프린터로 입체물을 얻고 이를 복원에 활용한다.



1999년 보존처리된 금동관의 기록카드



용 구름무늬 주자 보존처리 전(좌), 2015년 보존처리 후(우)

광범위한 결실을 입은 유물의 경우 진품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복원모조품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바깥쪽 투각부분을 반 정도 잃은 주자가 이러한 기술로 완형의 복제품을 얻는다. 빛고 굽고 칠하는 과정 없이 모니터에서 바로 튀어나온 듯한 ‘주자의 아바타’는 매끈한 자태를 뽐낸다. 손상된 유물을 만난 신기술은 도깨비 방망이다.

“유물보존에 최선을 다하지만 최상은 없다.” 그리고 “가역적인 방법과 재료를 사용하여 최소한으로 수리하며 수리된 부분은 쉽게 판별 가능해야 한다.” 전시기획자의 설명을 듣는다. 마음 한편이 뜨끔하다. 사금파리가 그대로 전시되면 성의가 없군, 접합 부분이 눈에 띄면 기술이 신통치 않네 하며 시답잖아 해온 걸 들킨 것 같다.

전시실 벽면에 적힌 한 보존처리자의 계명을 읽어본다. ‘옛 장인의 입장에서 당시 장인처럼 작업한다.’ ‘처리는 반영구적이므로 한번 실수는 영원하다.’ 보존처리 담당자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다짐이 준엄하기만 하다. 유물이 간직한 역사의 무게가 묵직한 만큼 그들에게 전하고픈 당부와 기대 역시 마찬가지다 싶다.

‘3부, 문화재의 생명을 연장하다’, 유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명, 온·습도, 해충, 곰팡이, 대기오염 등의 환경 인자를 보여준다. 이제 보존과학은 유물의 손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영구 보존에 도전한다. ‘문화재 병원’, ‘문화재 수사대’에 이어 ‘21세기 불로장생약’의 별칭을 곧 얻을 듯하다.

과학기술은 진보하며 우리의 상상을 실현해가고 저 멀리 앞서갈 때도 있다. 훗날 현재가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아니 ‘알과고가 바둑 두던 시절’로 불릴 때 보존과학의 지향점과 처리방법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보존처리자의 책상 위에는 무엇이 자리하려나. 어찌면, 수백 년 때로는 수천 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픈 유물의 바람이 들리는 것은 아닐까. 🐉

문정원 회원

선명한 원색인 곳당의 분위기가 생경하다. 너무도 강한 원색의 기운에 압도된 듯 곳판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감돈다. 양손에 신칼을 든 심방(무당)이 하얀 버선발로 조심스레 들어서 삼배를 올리며 영등곳의 시작을 고한다. 희한하다. 조금 전까지도 바람기 없이 잠잠했는데 깃대에 매인 긴 천이 세차게 펄럭이며 소리를 낸다. 드디어 바람의 신 영등할망이 바람을 몰고 들어오시나 보다.

바람의 신, 영등할망

아주 먼 옛날 제주 바다 수평선 너머에 영등이 살고 있었다. 영등은 이승 사람도 저승 사람도 용궁 사람도 아니었다. 태풍이 몰아치던 어느 날, 고기잡이를 나갔던 한수리 마을 어부들을 태운 배가 성난 파도에 휩쓸려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외눈박이 거인들의 섬으로 떠밀려 갔다. 영등은 어부들을 숨겼다가 순풍을 불어 주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외눈박이들은 잔뜩 화가 나 영등을 세 도막 내어 죽여 바다에 던져 버렸다. 영등의 머리는 우도, 몸통은 성산, 다리는 한수리 바다에서 떠올랐다.

이후로 제주도 사람들은 해마다 영등곳을 열어 바다의 재앙을 막아 준 영등신의 은덕을 기린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제주도에서 바람은 그 어떤 자연현상보다 두려운 존재다. 잔잔하던 물결이 사납게 요동치면 생업의 터인 바다는 갑자기 공포의 대상으로 모습을 바꾼다.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영등곳을 열어 바람을 다스리는 영등신을 극진히 대접하여 모신다.

봄이 시작되는 음력 2월,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데 이런 계절적 현상을 두고 제주도에서는 “영등할망이 왔다.”고 한다.

영등할망,
잘 보세요!



영등할망은 바람을 몰고 찾아와 땅과 바다에 풍요의 씨를 뿌려 주는 바람의 신이다. 영등할망은 음력 2월 초하룻날, 강남 천자국 혹은 외눈박이섬에서 제주도로 산 구경 물 구경하러 한림읍의 포구 북덕개로 들어온다. 제주도에 도착하면 먼저 한라산에 올라 오백 장군에게 인사를 올리고 섬 곳곳으로 꽃구경 다닌다. 섬에 머무는 동안 땅에는 곡식의 씨를, 바다에는 소라나 전복, 미역 등의 씨를 뿌려 주고 보름날 우도를 거쳐 자신이 사는 곳으로 돌아간다. 이때쯤이면 바닷가의 전복이나 보말의 속이 텅텅 비었는데, 영등할망이 바닷가를 돌며 다 까먹었기 때문이란단다.

영등할망 청치메 입엉 들어오민 날 좋곡
 우장 썩 오민 날 우치곡
 무지개 입엉 오민 출곡
 몹쓸 민 바람 분다.

영등제를 지낼 때 날씨가 따뜻하면 차림이 허술한 영등할망이, 추우면 두툼한 솜옷을 입은 영등할망이, 비가 오면 우장을 쓴 영등할망이 들어온 거라고 여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다. 영등할망은 딸을 데려오기도 하고 며느리를 데려오기도 하는데, 날씨가 좋으면 딸을 데려온 것이라 하여

풍년을 예측하며 반긴다. 그러나 궂은 날씨면 며느리를 데려온 것이라며 한 해 농사를 걱정한다.

500년을 이어 온 전통

구전으로 전해지거나 몸짓으로 이어지는 무형 문화재는 구체적인 기록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다행히 조선시대 각 지방의 지리와 풍습을 기록한 『신증동국여지승람』, 『탐라지』, 『동국세시기』 등에 영등굿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영등굿은 2월 초하루(음력)에 시작하여 보름에 끝난다. 영등굿이 열리는 달에는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일을 금한다. 영등굿은 귀덕, 금룡, 애월 지역에서 거행되었다. 2월 초하루에는 영등신을 맞이하는 굿을 하고 2월 보름날에는 영등신을 보내는 굿을 한다.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영등굿은 주로 마을 단위로 열린다. 원래는 영등신이 섬에 머무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중산간 지역을 포함해 제주도 전역에서 행해졌으나 지금은 주로 해안가 마을에서 축소되어 행해지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크고 원형이 잘 보존된 제주칠머리당영등굿조차도 영등신이 들어오는 초하루와 떠나기 전날인 열나흘날에만 영등환영제와 영등송별제를 벌인다.



초감제의 신칼춤

매인심방首巫堂이 이끄는 곳은 모든 신들을 굿당으로 청하는 ‘초감제’, 마을 수호신인 본향당신을 모셔 마을의 무사 안전을 기원하는 ‘본향뒸’, 신에게 술과 떡을 올리는 ‘추물공연’, 용왕과 영등신이 오는 길을 치우고 닦는 ‘요왕맞이’, 좁쌀로 점을 치고 해조류의 씨를 뿌리는 ‘씨드림’, 마을의 액운을 막는 ‘도액막음’, 제물을 실어 영등할망을 돌려보내는 ‘배방선’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신들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도진’으로 영등굿은 끝난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제주도의 독특한 풍속과 해녀들의 특이한 문화를 보여 주는 세계 유일의 해녀굿이라는 가치를 인정받아 198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상잠녀 중잠녀 하잠녀, 물질하러 갔다가 냇 나게 맵서. 물속에 들었다가 거북이 보고 놀라게 맵서. 바다에서 전복인가 소란가 하여, 눈에 편식하여 떼러 들어갔다 가 아니어서 손이 끼게 하지 맵서. 요왕님이 한 번 물에 들면 망사리 가득 많이 등에 지고 나가게 하여 이 자손들 편안하게 합서.”

해녀들의 안전과 풍성한 수확을 비는 심방의 모습은 더없이 진지하고 간절하다.

축제의 장

심방이 한바탕 춤판을 벌이는 동안 홀린 듯 춤사위에 빠져 들고 지장아씨의 기구한 운명을 늘어놓으며 눈물을 흘리는 심방의 이야기에 같이 슬퍼한다. 그러다 장구와 설쇠 가락이 빨라지면 어느새 장단에 맞춰 어깨를 들썩인다. 시루떡을 공중으로 던져 올리며 신을 즐겁게 놀리는 ‘나까시리 놀림’ 후에는 신에게 바쳤던 떡과 술을 나눠 먹으며 긴장을 늦춘다. 가면을 쓰고 횃불을 든 사내들이 뛰어들며 걸쭉한 농을



해안가에서 열린 칠머리당영등굿



바다에 띄워 보낼 짐배

던지는 ‘영감놀이’에 이르면 터지는 웃음으로 굿판은 신과 함께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잔치판이 된다. “에헤 에헤에~ 요. 2월이라 열나흘날 영등할망 가시는 날에~”로 이어지는 ‘서우젓 소리’에 맞춰 올 한 해가 순조롭기를 간절히 빌며 덩실덩실 어깨춤을 춘다. 온종일 시끌벅적하던 사라봉에 푸르스름한 저녁 빛이 내려앉는다.

영등할망 덕분에 한바탕 잘 놀았습니다. 영등할망, 잘 감사!

계운에 회원

즐거려는 마음 하나

청자를 처음 본 것은 지금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어느 박물관에서였다. 어려서 본 청자는 참 오묘했다. 형태는 항아리와 비슷한데 색깔이 오이비누와 비슷해서 유리관을 벗겨내면 오이냄새가 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었을 때 우연히 맞닥뜨린 고려청자는 참으로 아름다웠다. 어떤 물감을 쓰면 청자의 색을 종이 위에 구현할 수 있을까? 여러 물감을 섞어도, 아무리 질 좋은 비싼 안료라고 해도 청자의 비색을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치 투명하게 밑바닥이 비치는데 호수 같지만 자연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색감이며

어떻게 보면 무채색이다. 모던함마저 갖췄다. 왜 좋은지 설명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좋다. 섬세함은 또 어떨까. 무엇 하나 튀지 않는다. 하지만 제자리에서 각각 빛을 내고 있다. 형태는 좌우가 딱 맞지도 않고, 찍어 바른 물감도 붓끝에서 질게 묻혔던 자국부터 여러 번 그려 농도가 흐려진 붓질까지, 뜨거운 온도를 견디다 못해 입술은 살짝 일그러졌는데도 그것까지 모두 계산된 것처럼 아름다웠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완벽하지는 않은데 완벽하게 아름답다. 사치스럽지 않고 화려하지 않은데 우아하다. 기품이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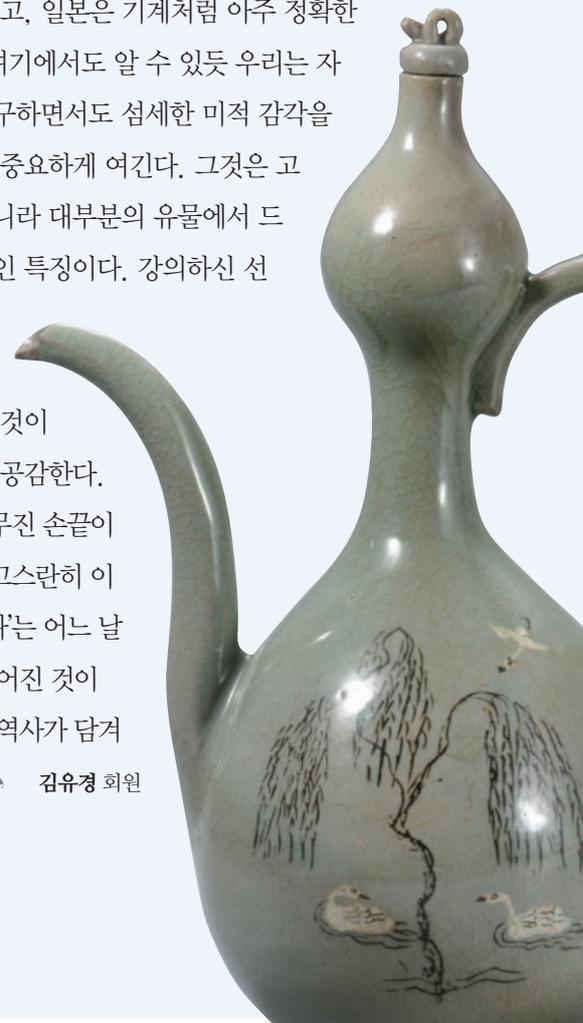
청자로 만든 베개는 또 어떤가. 청자베개라니……. 머리 두는 곳은 납작한 칼국수 밀가루 반죽 같은데 그걸 사자가 양쪽에서 받치고 있다. 이것을 베고 자면 어떤 꿈을 꾸게 될까. 탐스런 복숭아 모양의 연적도 보았다. 탐스럽다는 단어는 이럴 때 쓰는 것이구나.

그림을 잘 그리려면 먼저 대상을 관찰해야 한다. 연잎을 잘 그리고 싶으면 연잎을 정면에서도 보고 측면에서도 보고 위, 아래에서도 보아야 한다. 흐린 날도 보고 바람 부는 날도 보고 연잎을 애인 얼굴 보듯이 하면, 마침내 연잎이 눈앞에 없어도 종이 위에서 살아난다. 청자를 만드는 도공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래서 완벽한 진 앓는데 완벽한 아름다움이 표현되었으리라. 형태가 풍만함으로 가득 차면 무늬는 있는 듯 없는 듯 숨겨져 있다. 청자 속에 갇힌 버드나무와 오리를 보니 내가 물가에 와 있는 것 같다.

이런 보물을 만든 고려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강의 물을 들으며 놀랐던 것은 차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 청자로 된 찻잔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물론 현대의 우리도 차를 마실 때와 커피 마실 때 쓰는 잔이 다르고, 물 마실 때 쓰는 컵도 따로 있다. 그렇다 해도, 청자로 된 찻잔은 너무 고급스럽지 않은가. 내 손에 청자 찻잔이 있다면 차를 마시기보다는 조심조심 이리저리 돌려보며 감탄하기에 바빴을 텐데 이들에게는 일상

생활용품이라니, 즐기려는 마음 하나에서 시작되었다고 치기에는 결과물이 너무 훌륭하다. 고려인들의 미적 감각은 청자 한 가지만으로도 확실하게 증명된다.

그런데 한중일 삼국은 같은 동아시아에 속해 있어도, 국수를 만드는 방법조차 다르다. 중국은 수타로 면을 만들어 두께가 들쭉날쭉하고 우리는 반죽을 밀어 손으로 일정하게 썰고, 일본은 기계처럼 아주 정확한 면을 만든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면서도 섬세한 미적 감각을 담아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것은 고려청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물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강의하신 선생님 말씀 중에 한류는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에 공감한다. 고려인들의 아무진 손끝이 현대인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나'는 어느 날 하늘에서 푹 떨어진 것이 아니며 유구한 역사가 담겨 있는 존재다. 김유경 회원



송시열과 윤선거 분쟁의 기록

- 동원컬렉션 《황산기첩黃山記帖》 제작 배경 및 의의 -

공적이거나 사적인 연유로 모임을 개최하면, 이를 기념하려는 행위가 뒤따른다. 조선시대 문인들은 모임을 기념하기 위해 그림으로 그리고 모임에서 지은 시를 곁들여 족자나 화첩을 만들어 나누어 가졌다. 친목 도모, 결속력 강화, 풍류를 위해 모임을 개최하기에 모임의 기념물은 아름다운 추억을 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송시열宋時烈(1607~1689)이 참석했던 ‘황산지회黃山之會’를 기념하기 위한 서화첩《황산기유첩黃山記遊帖》에는 참석자 간의 ‘분쟁’이 기록되었다는 점이 다른 조선시대 모임 관련 서화첩과는 크게 차별화되므로, 이 서화첩 제작에 담긴 함의에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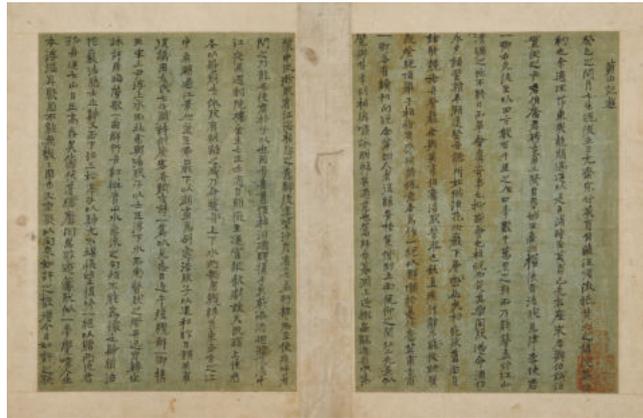
‘황산지회’는 1653년(효종 4) 현재의 충남 강경읍에 위치한 황산黃山서원(현 죽림서원)에서 송시열, 윤선거尹宣舉(1610~1669), 유계俞槩(1607~1664) 등의 서인들이 지인인 김경여의 장례 이후 친목 도모를 위해 개최한 모임이지만, 첫날밤 오랜 벗인 송시열과 윤선거가 윤휴尹鑣(1617~1680)에 대한 견해 차이로 심한 언쟁을 벌였다. 조선 유학사에서 이 사건을 서인西人이 송시열의 노론老論과 윤증尹拯(1629~1714)의 소론小論으로 분당되는 감정적

계기로 평가하고 있다. 27년 뒤인 1680년(숙종 8)에 송시열의 수제자 권상하權尙夏(1607~1689)가 참석자였던 유계가 모임 후에 쓴 서문, 참석자들의 시, 당대를 대표하는 화가 이징李潁(1581~1653년 이후)의 산수화와 1680년에 새로 작성한 송시열의 발문을 모아 《황산기유첩》을 제작했다. 《황산기유첩》은 18세기 전반에 권상하 집안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예기치 않은 훼손과 분실에 대비하여 이모본 《황산기유모첩》을 제작했음을 권상하의 조카 옥소玉所 권섭權燮(1671~1759)의 문집 『옥소고玉所稿』 중 「황산기유모첩발黃山記遊摹帖跋」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첩 모두 전하지 않고 18세기 중반에 이모하여 만든 동원 이홍근 컬렉션 《황산기첩黃山記帖》(동원 2200)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전해지고 있다.

《황산기첩》은 비록 이모본이지만, 이를 연구하여 기록으로만 전하는 원본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 또한 향사와 강학의 공간인 서원이 17세기에는 문인들의 풍류 장소로 사용되었고 당시 사적인 모임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총 14면으로 이루어진 《황산기첩》에는 시남市南 유계가 쓴 서문,

참석자들이 암송한 시경의 편명 11개와 수창한 시 10수, 송시열의 발문이 옥색 비단에 적혀 있으며, 수묵으로 그려진 모임 그림 6점이 모시에 그려져 있다.(도1~5)

제1면부터 제3면까지 유계가 쓴 ‘황산기유 黃山記遊’라는 제목의 서문에는 모이게 된 배경과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도1) ‘황산지회’는 1653년 윤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 동안 황산 서원에서 열렸다. 모임 첫날에 송시열, 송시열의 5촌 조카들이 연기燕岐에서 금강을 따라 배를 타고 내려왔고, 윤원거尹元舉(1601~1672), 윤근빙, 윤선거 등이 논산에서 왔으며, 해 질 무렵에 유계가 도착했으며, 호산壺山(전라북도 익산시의 동부에 위치) 수령 권성원權聖源(1602~1662)과 그의 아들 권격權格(1620~1671) 그리고 은산恩山(부여군에 위치) 수령 이정섭李廷夔까지 참여하여 모두 10명이 모였다. 다음날에는 용안龍安(전라북도 익산의 옛 명칭) 수령 박승건朴承健 등이 합류하여 총 12명이 황산지회를 함께했다. 모임 참석자들은 첫째 날 밤에 서원에서 술자리를 갖고 대화를 나누었고, 둘째 날 금강에서 뱃놀이를 즐겼으며, 셋째 날은 금강에서 배를 타고 전별연餞別宴을 가졌다. 조선 중기 이후 사림 세력은 학문 연구와 선현 제향을 목적으로 서원을 세웠는데, 이 서화첩의 모임 기록으로 서원이 본래 목적 이외에도 사림과 문인의 사적인 모임 장소로서, 친분과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1. 《황산기첩》 제1~2면



도2. 《황산기첩》 제7~8면

모임이 끝난 후 권성원은 유계에게 배 안에서 지은 시 초고와 함께 서문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고, 윤근빙 또한 유계에게 절구絕句 두 수를 보내면서 그에게 글쓰기를 요구하여 유계가 서문인 ‘황산유기’를 짓게 되었다. 이 첩은 권성원이 ‘황산지회’ 관련 기록을 남기려는 의지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훗날 권성원의 손자 권상하가 화첩을 제작하여 조부가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였다. 권상하는 집안에서 전해져 오던 유계의 글과 참석자들의 시구를 기록하고 이징에게 그림으로 그리게 하였으며, 이를 가지고 있다가



도3. 《황산기첩》 제9~10면



도4. 《황산기첩》 제11~12면

1680년에 스승 송시열에게 발문을 요청하여 화첩을 완성한 것이다.(도5) 권상하는 모임이 있었던 1653년에는 만12세로 아마도 조부 권성연의 임지를 따라 다녔을 것이다. 그는 조부로부터 이 모임에 대해 들었을 것이고 조부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시기를 기다리다가 필요한 순간에 서화첩을 완성한 것이다.

실제 벌어진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던 권상하의 주문을 받은 이징은 유계의 글에 따라 구상을 하고 그림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권상하가 이징에게 그림을 주문한 시기는 1680년 이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징은 1581년생이므로 1680년은 100세가 되는 해이기에 이때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아마도 권상하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송시열을 만난 1662년부터 권상하가 황강에 정착하는 1675년 이전 어느 시점에 이징에게 제작을 의뢰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징이 82세와 94세 사이에 그림을 제작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첩 제7면부터 12면까지 모두 6점의 그림이 있다. 제7면은 ‘황산지회’를 위해 참석자들이 황산서원으로 모여드는 장면이다.(도2우) 화면 좌측과 서원 문밖으로 나귀를 타고 오는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 유계의 서문에 나오는 송시열과 윤선거 등 6명이 먼저 도착하였고 권성원, 이징기가 뒤에 도착했다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

하였다. 제8면은 강가에 두 척의 배를 띄우고 선유船遊하는 장면이다.(도2좌) 제9면은 우측에 비스듬히 솟은 절벽에 소나무가 둘러서 있고 8명의 사람들이 서거나 앉아 있는 모습이다.(도3우) 절벽 아래 물가에는 배 두 척이 정박되어 있으며, 앞쪽 작은 돌섬에 서 있는 배 안에도 선비 셋과 시종이 그려져 있다. 유계 서문에서 밝힌 화산암花山巖 유람 장면을 그린 것이다. 화산암 아래에 배가 정박해 있는데

유계, 송시열, 윤원거, 권성원은 화산암을 예전에 자주 찾았기에 이번에는 오르지 않고 배에서 시회를 열다가, 저녁이 되자 마음을 바꾸어 올라갔다고 한다. 제10면은 화산암 유람을 끝내고 배를 타고 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용안 수령 박승건을 만나 배에 태운 일을 그린 장면이다.(도3좌) 제11면은 셋째 날 오전 이별을 준비하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일행들은 배를 타고 북동쪽으로 올라가 강경산을 지나 불암佛巖 아래에 물이 끝나는 곳을 이별의 장소로 잡아 시회를 갖고 석별의 정을 나누는 장면이다.(도4우) 제12면은 전별 의식을 마친 후 정오가 되자 가는 방향에 따라 송시열과 윤선거 등은 북쪽으로 가고 유계와 세 명의 수령은 남쪽으로 이동한 장면이다.(도4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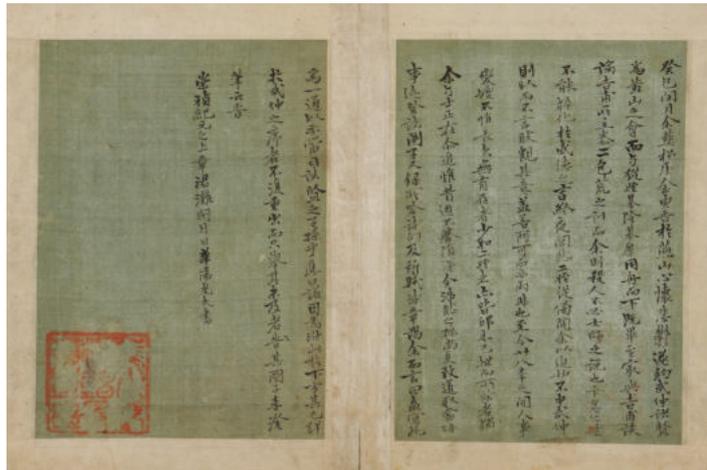
이 서화첩처럼 모임의 여정을 여섯 쪽으로 상세하게 그린 예는 조선시대 모임 관련 그림 중에서 찾아볼 수 없기에 이 모임의 중요도를 짐작할 수 있다. 6점 중 5점이 금강에서의 선유하는 장면일 정도로 이 모임에서 선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는 강가에서 선유하며 모임을 갖는 조선 초기 모임 전통에 잇닿아 있다. 조선 초기 한양 거주 문인들은 한강가의 화양정, 제천정과 같은 정자와 독서당 관아에서 연회를 열고 승경을 감상하였으며 선유를 즐겼다. 조선시대 문인들의 모임과 관련된 그림 제작 양상은, 15~16세기에는 공적인 목적의 계획도 제작이 주를 이루다가 17세기 이후에는 전별연, 시회도와 같은 사적인

목적의 아회도가 활발하게 제작되는데, 이 그림은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제작된 것으로 17세기 이후 정립된 선비 문화의 성격과 새로운 경향을 대변한다.

그림의 필치는 원작자 이징 화풍과는 매우 차이가 있다. 모사본의 그림들은 이징 원작의 필치를 모사한 것이 아니라 당시 유행하던 정선의 필치를 반영하였다. 이에 대해 《황산기첩》을 보고 모사하면서 당대 가장 유행한 정선 화풍으로 전환한 결과일 수도 있고 권섭이 모사한 첩과 같은 이모본을 보고 재이모를 했을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무엇을 모본으로 삼았는지 확신할 수는 없으나 황산기첩은 표지와 화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1740년대 이후 1776년경 이전인 18세기 중반경에 모사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첩에 수록된 그림은 치졸한 수준이므로 감상적 측면에서의 가치는 낮지만, 동아시아 회화의 이모移摹의 가치와 의미를 알려준다. 이모는 그림을 배우는



도5. 《황산기첩》 제13~14면

단계에서 행해지는 기초 작업이자, 보존 가치가 높은 원본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며, 원본에 대한 복수의 수요에 대응하는 해결 방식이다. 조선시대에는 어진이나 공신도와 같이 공적인 회화에 대한 이모뿐만 아니라 사적인 모임을 그린 화첩의 이모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 첩의 이모 시기와 이모본 제작에 관여한 인물에 대한 정보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문양이 있는 옥색 비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화첩 모사에 정성을 들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지로 경사진 격자 책판 문양이 눌러져 있는 종이를 썼기 때문에, 만자문 장식 표지가 유행했던 정조대(재위 1776~1800) 이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첩이 지니는 가치는 회화의 정치적 역할을 보여준다는 데에 있다. 모임 참석자도 아닌 후손 권상하가 27년이 지난 후에 첩을 제작한 이유에 주목해야 하는데, 이는 회화를 활용하여 특정 집단 내에서 메시지를 공유하고 결속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황산기유첩》을 완성한 1680년은 경신환국庚申煥局으로 남인이 실각하고 송시열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은 서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송시열은 유배에서 돌아와 쓴 발문에서 특이하게도 ‘황산지회’에 있었던 윤선거와의 언쟁을 스스로 밝혔다. 이는 유계가 지은 서문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건이다. 송시열의 발문이 추가되면서 《황산기유첩》은 아름다운 풍류의 기록을 넘어서, 송시열이 명시하고 공유하고 싶은 역사적 사건의 기록이 되었다. 또한 송시열은 발문에서, 권상하가 ‘황산지회’ 참석자의 후손에게 이 모임을 알리기 위해 《황산기유첩》을 제작했다고 하는데, 그의 의도대로 후손들은

《황산기유첩》을 오래 보존하고자 여러 차례 이모본을 제작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다. 송시열을 따르는 일파들은 이 첩을 돌려보면서 집단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했을 것이며, ‘황산지회’에서의 언쟁은 점차 널리 알려져서 역사적으로 노소론 분당의 계기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모임의 기념물인 서화첩의 제작과 이모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사건의 기록에 그치지 않고 의도의 전달과 공유라는 회화의 또 다른 활용 방식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으며 이모된 화첩을 재평가하여 전시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수경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박은화(충북대학교 교수)

1653년에 열린 ‘黃山之會’를 기념하기 위해 1680년에 제작된 『黃山記遊帖』을 이모한 『黃山記帖』을 통해 17세기 문인들이 서원을 중심으로 가졌던 모임의 양상을 파악하고 제작의도를 추론하여 조선 후기 화첩의 제작 목적과 기능에 대해 고찰한 논문으로 『黃山記帖』에 포함된 서문과 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화첩의 제작 배경과 경위 및 정치적 함의를 규명하고, 화첩의 상태와 그림의 양식분석을 통해 이모본의 제작시기를 18세기 중반경으로 추정하였다.

새로운 자료를 다각적으로 살펴본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화첩이나 개인의 문집 속에 포함되어 잘 알려지지 않았던 회화자료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제10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9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2~3명에게 학술연구비를 지급하였고, 2007년부터는 학술상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시상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및 지방국립박물관의 직원들이 응모할 수 있으며, 천마상 1천만원, 금관상 5백만원, 은관상 2백만원, 특별상(전시도록) 3백만원을 시상하고 있다. 이번 2016년 제 10회 학술상에서는 금관상 3명, 은관상 2명, 특별상 4단체가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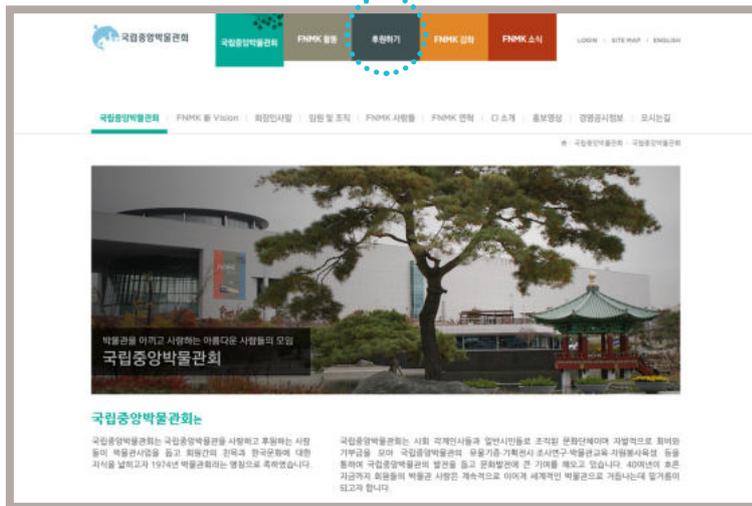
구분	수상자	논문명
금관상	이주현(국립전주박물관)	양단함봉상철기단상
	권혁산(국립중앙박물관)	광해군대의 공신화상과 이모본 제작
	김종우(국립경주박물관), 장용준(국립대구박물관)	천마총 출토 백화수피제 장니의 제작과 특징
은관상	이태희(국립경주박물관)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중국 문화재 수집
	임재원(국립경주박물관)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에 대한 고찰
특별상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도록 『발원, 간절한 바람을 담다』
	국립대구박물관	도록 『상어, 그리고 돛배기』
	국립김해박물관	도록 『빠? 빠!- 고인골, 개인의 삶에서 시대의 문화를 읽다』
	국립제주박물관	도록 『조선 선비 최부, 뜻밖의 중국 견문』



국립중앙박물관회 후원하기 안내

국립중앙박물관회는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보다 손쉬운 참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 홈페이지 www.mumes.org로 접속
화면상단 **후원하기** 클릭



문화의 힘으로 국격을 높이는 일,
인류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후대에 전하는 일,
그 뒤에는 문화예술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연꽃에서 다시 태어나는 모습, 아시아관 중앙아시아실

蓮花化生

천오백여 년 전,
멀리 타클라마칸 사막의 호탄에서

아미타불의 극락정토
구품연지에서 다시 태어나는
꿈을 꾸며
빛었을
蓮花化生

그 꿈은 여전히
아련하면서도 생생하게
숨 쉬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俞相玉, 柳昌宗 회장을 거쳐 2011년 11월 金正泰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金正泰
 副 會 長 | 申聖秀 洪錫肇
 理 事 | 金信韓 金英那 南秀淨 朴殷寬 禹燦奎
 尹碩敏 尹在倫 李健茂 李圭植 鄭溶鎭
 許榕秀 洪政旭 李榮勳
 監 事 | 金教台 李教祥
 事 務 局 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원, 청룡 오십억원, 백호 삼십억원, 주작 십억원, 현무 오억원, 천마 일억원, 금관 오천만원, 은관 삼천만원, 청자 일천만원, 백자 오백만원, 수정 이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주작회원

尹光子 회원

현무회원

金正泰 하나금융그룹

천마회원

朴殷寬 (주)시몬스 회장
 孫昌根 소장가
 申聖秀 고려산업(주) 회장
 申憲澈 SK에너지
 尹碩敏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尹章燮 호림박물관 이사장
 鄭溶鎭 신세계그룹 부회장
 千信一 세종문화재단 이사장
 許榕秀 GS에너지(주) 부사장

금관회원

姜德壽 (주)STX
 庚 園 광제사 주지
 權俊一, 具在善 Actium Group LLC 부회장
 曉 憬 회원
 金承謙 서릉지주(주) 대표이사 의장

金信韓
 南秀淨
 都炯泰
 朴炳燁
 朴容允
 俞相玉
 尹在倫
 李圭植
 李明姬
 李埜炅
 鄭明勳
 鄭在鳳
 趙顯相
 許允秀
 洪錫肇
 洪政旭

은관회원

姜院基
 金教台
 金南延
 金錫洙
 金寧明

대성 사장
 (주)썬앳푸드 사장
 갤러리현대 부사장
 팬택&큐리텔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서울대학교 교수
 경신금융(주) 대표
 일우재단 이사장
 MashupAngels 대표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주)한섬
 효성 산업자재 PG장&전략본부 부사장
 (주)ALTO · (주)ALTEK 부사장
 (주)BGF리테일 회장
 (주)헤럴드 회장

오리온 대표
 삼정회계법인 대표
 (주)동훈 대표이사
 동서식품(주) 회장
 (주)예을 이사장

회원
 (주)종합전기 대표
 (주)건설 대표
 (주)풍산주택 회장
 두산중공업(주) 대표이사 부회장
 두산(주) 사장
 창성그룹 대표이사 사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주)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광성기업(주) 대표
 성문출판사 대표
 대신증권(주) 사장
 학교재 대표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서울가든호텔 부사장
 금강공업(주) 부사장
 (주)동남유화 부회장
 대보건설(주) 부사장
 M&M(주) 사장
 화정박물관 관장
 GS건설 전무

청자회원

姜承模 KP그룹 부회장
 高基瑛 (주)금비 사장
 具東輝 (주)LS 부장
 具本權 (주)LS 차장
 具本商 LIG넥스원(주) 부회장
 具本赫 LS-Nikko동제련(주) 전무
 金建昊 (주)삼양홀딩스 부장
 金京姬 (주)피어나조경 대표이사
 金寧慈 (주)에올 명예이사장
 金東官 한화 큐셀 전무
 金東準 다우기술 이사
 金斗植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金性南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金性完 스무디킹 Global CEO
 金世淵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金永珉 김&장 법률사무소
 金榮秀 2014아시아게임 조직위원장
 金英惠 제일화재 이사장
 金裕錫 (주)행남 대표이사
 金壽壽 지리산 문학관 관장
 金恩惠 서울도시가스 이사
 金益煥 한세실업(주) 이사
 金仁順 한국고미술자기 연구소
 金載烈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金載勳 영풍제약 부사장
 金正宙 (주)NXC 대표이사
 金宗學 서양화가
 金兌炫 성신양회(주) 사장
 金澤辰 (주)엔씨소프트 대표
 金賢銓 히든베이호텔 사장
 南兌勳 국제약품 대표이사 부사장
 柳重熙 (주)퓨처플레이 대표이사
 柳智勳 (주)한담 사장
 朴璟鎭 진주햄 대표이사 부사장
 朴仙卿 용인대학교 부총장
 朴善正 대선계분(주) 전무
 朴宣注 영은미술관 관장
 朴世昌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
 朴載相 성곡미술관 이사
 朴載蓮 (주)신원 부회장
 朴廷彬 재미교포
 朴正遠 본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朴俊泳 TV조선 상무
 朴海春
 方正梧

徐東姪
 薛允碩
 孫元洛
 宋秉峻
 辛炳讚
 申硯均
 辛永茂
 愼昌宰
 沈宗玄
 楊仁集
 梁汰會
 吳勝敏
 吳治勳
 俞承熹
 柳英芝
 尹寬
 尹普鉉
 尹勝鉉
 尹賢慶
 李甲宰
 李圭鎬
 李起雄
 李萬圭
 李美淑
 李常宰
 李善眞
 李承勇
 李英純
 李鈴子
 李玉卿
 李容濤
 李宇成
 李宇鉉
 李雲卿
 李胤基
 李仁洙
 李宰旭
 李廷龍
 李周成
 李柱翰
 李濬宇
 李芝衡
 李哲雨
 李學俊
 李海珍
 林鍾勳

회원
 대한광통신 사장
 (주)경동홀딩스 상무
 (주)게임빌 · (주)킴투스 대표이사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아름지기 이사장
 법무법인 세종 대표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한국기구박물관 부관장
 (주)진로 대표이사 사장
 (주)비상교육 대표이사
 동일산업(주) 대표이사 사장
 대한제강(주) 대표이사 사장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관장
 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
 BlueRun Ventures 대표
 호림박물관 이사
 (주)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동화약품 상무
 삼일회계법인 전무
 코오롱 인더스트리 상무
 열화당 대표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삼표산업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목금토갤러리 관장
 (주)에이티네파트너스 대표이사
 한국미술협회 회원
 서울옥션 대표
 (주)경농 상무이사
 (주)이테크건설 전무
 OCI 사장
 남양유업 전문위원
 그랜드힐튼호텔 사장
 수원대학교 이사장
 전남일보 사장/발행인
 가나아트갤러리 대표
 세아제강 전문이사
 (주)삼익유니버스 이사
 흥아해운 전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사
 롯데쇼핑 총괄사장
 서울옥션 고문
 NAVER 이사회 의장
 한미IT(주) 대표이사

張升準
 張仁宇
 洋賢財團
 田永采
 丁恩美
 鄭義直
 鄭在昊
 鄭志伊
 趙炳舜
 曹榮美
 曹榮峻
 曹在顯
 趙希卿
 陳在旭
 千碩圭
 崔世勳
 崔雄善
 崔仁善
 崔再源
 崔惠玉
 한국도로공사
 韓榮宰
 咸泳俊
 許正錫
 許辰秀
 玄明官
 玄智皓
 胡鍾一
 胡昌成
 洪範碩
 洪碩杓
 洪誠杓
 洪元福, 金根鎬
 洪正國
 洪正道
 洪進基
 洪振碩
 黃仁奎
 Joseph Bae
 Mark Tetto

매일경제 사장
 선인자동차 · 고진모터스 대표이사
 (사)한길봉사회 이사장
 블룸앤코 대표
 현대자동차 부회장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현대유엔아이 전무
 성암고서박물관장
 경동소제 대표이사
 우양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주)가온소사이어티 대표
 하나유비에스 대표
 천일식품(주) 대표
 (주)카카오 CFO
 (주)인팩 대표이사
 회원
 SK(주) 부회장
 회원 · 자원봉사
 노루홀딩스 회장
 (주)오투기 회장
 일진홀딩스(주) 대표이사
 SPC(주) 부사장
 (주)화승R&A 부회장
 호성호업 회장
 (주)더벤처스 대표이사
 남양유업(주) 부장
 고려제강 상무
 고려상사(주) 부회장
 회원
 (주)BGF리테일 전무
 중앙미디어네트워크 대표이사 사장
 마리오아울렛 실장
 남양유업(주) 상무
 충남도시가스 대표이사
 KKR Asia Limited 대표
 TCK Investments 상무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